

# 능동적 행정인의 도덕적 덕목: 『주역』의 세계관과 ‘9덕괘(九德卦)’의 해석을 중심으로

장 순 희\* · 이 광 모\*\*

<目 次>

- I. 서 론
- II. 능동적 행정인과 『주역(周易)』의 세계관
- III. 『역전(易傳)』의 성찰적 방법
- IV. 진덕수업(進德修業)의 방법
- V. 9덕(九德)의 내용
- VI. 결 론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들을 개념적 관점으로부터 담론을 시도하려는데 있다. 중요한 연구 주제 중의 하나는 행정이 복잡한 행정현상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연구에 다른 방법들을 취해서 이론적으로 더 적당한 것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능동적 행정인은 변화에 관하여 더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동적 행정인’의 특성들을 논의하려고 시도 하였다. 왜냐하면 관료제의 능동적 변화는 능동적 행정인으로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역』의 ‘친인합덕’의 세계관을 통하여 ‘우환의식’, ‘음양합일’, ‘시위’, 그리고 ‘중정’ 등과 같은 기본원리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진덕수업’의 방법은 ‘9덕괘’의 개념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주제어: 능동적 행정인, 우환의식, 음양합일, 시·위, 9덕괘】

\* 삼척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 삼척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원 전문연구 교수

## I. 서 론

현대의 복잡적응시스템(complexity adaptation system) 속에서 행정인들은 다원적 성격의 공공선을 패러독스적 상황 하에서 부득이 다루어야만 한다.<sup>1)</sup> 이러한 조건에서 효과적인 행정인은 자신의 책임 의식 하에 자율적 판단과 비판적 성찰을 함으로써 시민 지향적인 도덕을 실행하는 자이다. 이러한 행정인만이 맹목적으로 명령과 규칙에 복종하거나 규정을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종섭(2001: 250)은 Rawls(1971: 491)가 주장한 정의(justice)가 개인의 도덕적 삶에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강조하면서 개인은 정의에 입각하여 선(goodness)의 개념을 만들고 고치고 추구하는 능력과 함께 사회적 협력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도덕적 능력을 가진 자율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역』에서는 불완전한 인간 실존의 부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사람은 자아를 조절·규율하며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자율적 주체로 인식한다. 즉, 인간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 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환의식(憂患意識)'에 기초하여 자아(自我)를 이해하고, 현재 놓여진 상황의 전체적 의미를 통해서 도덕적 원칙들을 부단히 창조하려는 능동인(能動人)으로 인식한다. 『주역』은 우주의 모든 존재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한다.<sup>2)</sup> 인간은 때때로 사욕(私慾)에 본성이 눌러져서 부정과 부패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지만 결국에는 다시 선(善)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잠재된 존재<sup>3)</sup>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

- 
- 1) 서구 사회의 도덕적 위기를 사회문제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크게 나누어 보면 사회변동론적 접근방법, 가치갈등적 접근방법, 사회병리학적 접근방법, 일탈행위적 접근방법 등으로 정리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이론들을 통합시키려는 방법으로 체계론적인 접근(systematic approach)을 시도하기도 한다. 즉 사회를 하나의 적응하는 시스템으로 보고 체계의 안정과 건강성을 도덕의 문제와 연결시켜 보려는 시도이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를 복잡적응체계인 사회 현상으로 파악하는 총체적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재운·최진태, 1997: 104-109를 참조).
  - 2) 우주에서 가장 근원적인 3재(三才: 天·地·人)의 도(道) 즉, 천도(天道)는 음양론(陰陽論), 지도(地道)는 강유론(剛柔論), 인도(人道)는 인의론(仁義論)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역(易)'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역시 인간(人間)이다.
  - 3) 인간은 선(善)에 대한 자각(自覺)이 수기(修己)로 이어져서 안인(安人)에 이르는 도덕적 주체이다. 따라서 인간은 극기복례(克己復禮)로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추구하다가 중단하는 순간에는 생생화육(生生化育)의 질서에 순응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인간은 끊임없는 자기성찰이 요구되는 도덕적 존재인 것이다.

서 『주역』의 괘효사(卦爻辭)에서는 ‘무구(无咎)’<sup>4)</sup>가 강조되고 있다.

『주역』에서 제시되는 도덕적 군자(君子)는 인간의 원형이며 회복되어야 할 인간의 본래적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대상전(大象傳)」에 나오는 군자는 모두 정치지도자인 관료로서의 군자를 말한다(곽신환, 2003: 179). 결국 ‘군자(君子)란 부단히 자기성찰(自己省察)의 도덕수양(道德修養)을 통해서 이웃, 사회, 국가에 그 영향력을 파급시키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군자는 곧 현대의 행정인과 통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군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덕목들 또한 현대의 행정인<sup>5)</sup>에게 요구되는 윤리 도덕적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수기(修己)하는 군자(君子)’를 ‘성찰(省察)하는 행정인(行政人)’으로 규정<sup>6)</sup>하고, 아울러 『역전』에 제시된 도덕적 덕목들 또한 ‘성찰적 행정인의 도덕적 덕목’으로 이해하고 재해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역(周易)』의 서지학(書誌學)적 또는 자구(字句)의 해

- 
- 4) 교회민(2004: 415-418)은 이 ‘무구’에 대하여 ‘인간이 과실을 범하는 것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나, 문제는 잘못을 알고 난 후에 그 잘못을 잘 보충할 수 있으면 그것은 잘못이 없는 것과 같다. 잘못하고서도 보충하지 않는 것이 잘못을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 5) 본 연구에서의 행정인이란 현장에서 행정을 실천하는 공무원은 물론 행정이론가인 학자와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생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행정인을 의미한다.
- 6) ‘수기(修己)하는 군자(君子)’를 ‘성찰(省察)하는 행정인(行政人)’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대상전(大象傳)」에서는 ‘역(易)’의 64괘 중 53괘에서 ‘君子以…’로 시작한다. 그러나 대상전에 나오는 군자의 의미가 일관되지 못하여, 흔히 군자를 유가의 이상적 인간상으로 생각하지만, 군자는 본래 지도자를 의미하는 신분의 개념이었다. 9덕괘에 나오는 군자도 모두 정치적 지도자, 즉 관료(官僚)로서의 군자를 의미하는데, 반드시 지위(地位)를 요구하지는 않으며, 나중에는 모두 도덕 수양을 본질로 하는 인격체로서 군자를 내세우게 되었다. 또한 군자를 행정인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군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민·소인이 사용되는데 이는 만민, 백성, 하민, 소민 등의 신분개념으로 군자와 대비되어 사용되다가 나중엔 식견이 좁고 능력이 적어 큰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일컫게 되었다. ‘군자는 이것을 보고 민생을 일으키고 덕업을 기른다(君子以振民育德)’, ‘군자는 백성을 가르치고 포용하며 보호하고자 하는 뜻이 끝이 없다(君子以教思无穷 容保民无疆)’, ‘수고하고도 겸손한 군자이니 만민이 따른다(勞謙君子萬民服也)’, ‘형벌이 맑으니 백성이 따른다(刑罰清而民服)’, ‘기쁜 일은 백성을 앞세운다(說以先民) 등등 지도자는 민중의 삶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실정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며, 시의성을 지닌 정책을 강구하여 민중의 곤궁을 해결해야 하며, 지도자가 마땅히 공복 의식을 지니고 부지런히 힘쓰되 겸손해야 하며, 형벌을 바르고 맑게 해야 민중이 공권력 행사에 호응하게 되며, 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바른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주역의 군자(君子)를 현대 행정인으로 규정한 본 연구의 의도는 타당하다고 하겠다.

석에 관련된 논쟁이나 미래 예측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역전(易傳)』에서 말하는 군자의 도덕적 덕목들을 현대의 복잡적응 시스템 하에서 행정인의 도덕적 덕목으로 어떻게 재해석하고 재구성하여 제시할 수 있는가에 연구의 초점이 있다. 이러한 구상에서 우선 천인합덕(天人合德)의 관(觀)을 통해서 ‘우환의식(憂患意識)’, ‘음양합일(陰陽合一)’, 시위(時位) 및 중정(中正) 등 근본 원리들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현대 행정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덕목(道德的 德目)은 진덕수업(進德修業)의 방법인 9덕괘(九德卦)를 좀더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 II. 능동적 행정인과 『주역(周易)』의 세계관

### 1. 능동적 행정인

#### 1) 능동적 행정인의 기본 관점

근래에 행정조직의 능동적 변화(proactive change)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거대한 기술적 관료제하에서의 행정인은 합리적 절차에 따라 과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사회변동에 단편적으로 대응하는 수동적인 기능인들(functionaries)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인의 합리적 행태만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가 되었고, 따라서 행정인은 자신이 매우 무기력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이제는 기존 조직의 규범, 가치, 규칙, 정책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개념체계를 재구성하고, 정책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변화와 학습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자의의식적인 능동적 성향의 행정인의 모습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도덕교육의 연구동향<sup>7)</sup>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도덕에 관한 문제는 개인 내부의 자율성과 여러 외부적인 도덕적 규범들과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sup>8)</sup> 행정과정에서의 근본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행정인 자신이 자율의식

7) 자유주의 윤리학을 배경으로 하는 도덕교육의 ‘자율론적 접근’은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을 가장 우선시하고, 도덕 교육은 이러한 자율성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본다. 그런데 80년대 이후 이러한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우선하는 접근들이 비판을 받으면서, 도덕교육의 초점은 사회의 기본적 핵심가치의 주입을 강조하고 배려(caring)와 공동체(community)를 지향하는 ‘도덕적 덕목’ 내지는 ‘통합론적 접근(integrative approach)’이 부각되고 있다.

8) 개인적 자율이 자기 내면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을 통제(mind control)하는 것이라면, 도덕적 규범은 밖을 바라보고 공동의 선(common good)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Dagger, 1997: 13).

에 따른 내적 성찰을 통하여 시민지향적인 도덕을 실천하여야 한다(전중섭, 2001: 241). 한 신문사의 조사<sup>9)</sup>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라는 공직자상은 공무원 개인의 ‘직무 능력보다도 높은 수준의 도덕성’ 이라고 한다. 개인적 자율성이 공공부문과 연계되려면 자신의 이기적인 사익을 과감히 포기하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만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성찰적 행정인(reflexive administrator)은 능동적 행정인(proactive administrator)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 행정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에 참여하는 행정인의 태도와 그들이 처한 시간 및 위치(時·位)에서 그 문제들이 분석되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개인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조직구조의 개선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추진되어 나갈 때에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 조직은 공공의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과 활동들의 과정에서 구성된 복잡한 네트워크 연결망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행정에는 수많은 갈등과 대립, 그리고 충돌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인간을 외부환경조건에 단지 대응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행태주의 관점보다는 인간은 자신의 환경적 조건에 자발적 또는 의도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 존재로 간주하는 인본주의 관점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 2) 능동적 행정인의 특성

행태주의가 외부환경에 대응하는 행태의 구조, 기능 및 양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인본주의는 드러난 행태만이 아니라 인간들이 서로 간의 관계에서 서로 어떤 의미가 교환되는지를 이해하는데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능동적 행정인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기초를 제공해 준다. 능동적 행정인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능동적 행정인은 항상 염려하는 마음으로 행정문제를 세심히 관찰하고, 자신을 성찰하여 자각의 기회를 갖는 자이다. 능동적 행정인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일상의 행정에서 마주치는 문제에 임기응변식으로 단순히 대응하거나,

9) 2005년 5월 17일자 한겨레신문은 여론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공직자상은 직무능력보다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라는 조사결과를 게재하였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의 정도는 ‘일반인에 비해 훨씬 더 완벽해야 한다’는 의견이 41.8%, ‘어느 정도 더 완벽해야 한다’는 답변이 46.3%로 전체 응답자의 88.1%가 완벽에 가까운 도덕성을 공직자에게 주문하고 있다.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이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11.3%에 그쳤다. 또한 과장급, 국장급, 차관급, 장관급 등 공직자의 직급이 높을수록 도덕성 잣대도 높아지고 있으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일관성을 보였다.

행정 내·외부의 규범, 규칙, 제도 등 요구 사항 때문에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실행하는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려 애쓰며, 원하는 변화를 위해서 조화 또는 부조화를 번갈아 사용하기도 한다.

둘째, 능동적 행정인은 역동적인 변화와 성장을 지향한다. 변화와 성장을 지향하기 때문에 자발적이 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적극성을 띠게 되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아 실현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 대개 자아 실현적인 사람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 사이의 상호 관계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새로움에 개방적이며 자발적일 수 있고, 타인의 성장을 진심으로 도우려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편견을 경계하며, 변화란 서로 다른 조건과 요소가 결합하여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길 원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해결 대안을 의식적으로 추구하며 자신의 행위 결과에 대하여 기꺼이 책임지려 한다.

셋째, 능동적 행정인은 행정을 어떤 고정된 틀로 생각하지 않고 관련자들의 상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서로 상호 작용하는 ‘관계’를 중시하여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적 과정을 찾아가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능동적 행정인들은 서로 대화하고 상호학습하면서 갈등을 줄여가고 행정의 문제점을 공유하며, 그 당시의 시간과 공간 내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된다.

넷째, 능동적 행정인은 적극적인 실천을 추구한다. 능동적 행정인은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의미 있는 행위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써 현 행정체도의 모순을 발견하고, 행정문제 해결에 경험적 방법론만으로는 부족함을 인식하여 비판적 대안을 발굴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이들은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 행정체제를 이해하려고 하며, 행정은 구성요소들이 상호 의존하여 공진화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식하고 접근한다.

## 2. 「주역」의 세계관

「주역」에서의 능동인(能動人)은 부단한 변역(變易)의 논리에 감응(感應)하며, 천지화육(天地化育)에 동참하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개인은 궁극적 이상을 성취하는 주체적 존재가 되며, 이 때 내부의 자율적 도덕의식이 그 개인의 생존에 존재론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주역」은 개인 속에 세계가 있고 세계 속에 개인이 발견되는 전체성(holism)의 변증법적 관점(dialectical perspective)을 취하며, 인간의 능동성을 전제로 하여 어떻게 인간이 자율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를 논한다.

따라서 「주역」에서의 도덕성은 그저 어떤 도덕적 원칙을 지키는 문제가 아

니다. 자아의 긍정적 이해와 전체성에 입각한 상황이나 조건의 현실적 의미를 이해하여 능동적으로 도덕적 기준을 부단히 창조해 가는 것이다. 『주역』은 천지 만물을 음양(陰陽)의 관계로 보고 생명의 생성 또한 음양 관계상에서 이해한다. 즉 양은 음에 의존하고, 음은 양에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며, 새로운 생명도 음양이 합일할 때 비로소 탄생하므로 음양은 대대적(對待的)관계에 놓이게 된다. 세계의 존재와 변화의 원리가 음양론(陰陽論)이며, 이는 곧 천지가 만물의 생성 변화의 근원이라는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관은 음양 간의 조화와 일음일양(一陰一陽)이 계속되는 영속적 생명 활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이러한 가치의 실현은 시위(時位)의 구조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주역』의 인생관은 음양의 합덕(合德) 속에서 수양(修養)과 실천(實踐)핵심으로 한다. 그래서 남상호(2001: 28)는 『주역』의 세계관적 목적은 자연의 적당성(適當性)과 인생의 응당성(應當性)이 합치(合致)되도록 하여, 즉 천인합덕(天人合德)하여, 생명(生命)과 사랑(仁)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핵심문제는 어떻게 하면 천(天)·지(地)·인(人) 삼재(三才)가 조화를 이루어 천인합덕 할 수 있느냐로 모아진다. 천인합덕론(天人合德論)은 음양론(陰陽論)과 시위론(時位論)을 통합한 형태로서 『주역』의 방법상 최고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최적의 시·위(時·位) 조건 속에서 음·양(陰·陽)이 조화(調和)를 이룰 수 있듯이 천인합덕을 시위로 말하면 시위(時位)상 적절한 경지인 중정(中正)을 얻고 지키는 것이 바로 인(仁)이 된다. 그리고 이 인(仁)은 곧 '한번 음이 되었다가 또 한번은 양이 되는 도(一陰一陽之謂道)'의 덕(生生之德)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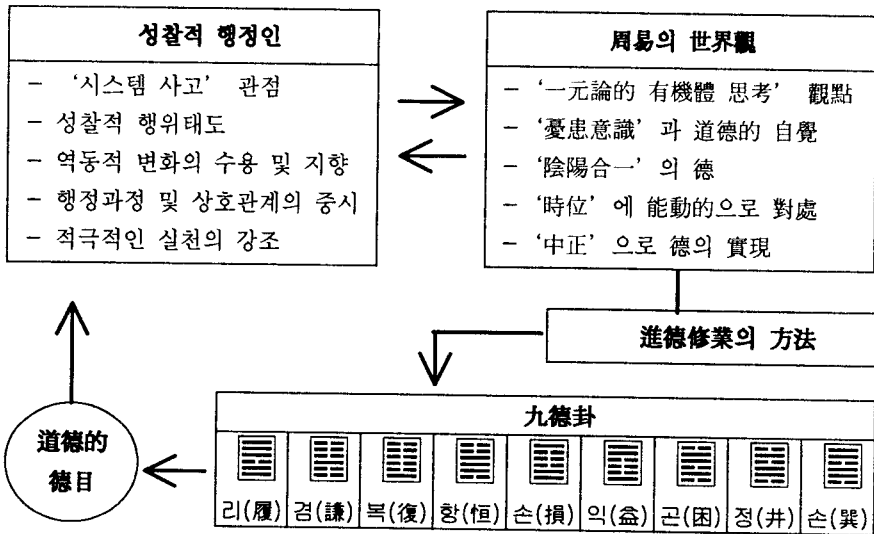
그러나 천인합덕의 경지에 도달하는 방법이 인(仁)한 본성에 있다고 하여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므로 궁리(窮理)와 진성(盡性)으로 진덕수업(進德修業)하고, 성실(誠實)함으로 자강불식(自強不息)해야 하는 것이다. 이 자강불식하는 진덕수업은 세상을 등지고 혼자 수양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투성이인 현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 자각인 것이다.

### 3. 비교의 분석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행정에서 요구되는 능동적 행정인의 기본관점과 특성은 『주역』의 세계인식원리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즉 능동적 행정인은 변화에 매우 적극적이며 자율의식에 따른 도덕적 성찰을 통하여 시민 지향적 도덕을 실천하려고 한다. 능동적 행정인은 시스템적 사고 관점으로 성찰적 행위태도, 역동적 변화의 수용 및 지향, 행정과정과 상호관계의 중시, 적극적인 실천방법의 강구 등을 특성으로 한다.

한편 주역의 세계관은 변증법적 관점에서 인간의 능동성을 전제하여 만물의 음양상 관계를 이해하려고 한다. 천지인은 기일원론적 유기체 관계에 있으며, 인간은 우환의식 속에서 현실의 삶을 부단히 성찰하면서 음양합일의 덕을 세우려고 애쓰는 존재로 본다. 또 「역전」에서는 음양합일의 덕은 시위에 따른 진덕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진덕수업의 구체적 내용으로 9덕을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다. 곧 이러한 구덕의 도덕적 덕목은 현대행정에서의 능동적 행정인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림1〉 비교의 분석틀



### Ⅲ. 『역전(易傳)』의 성찰적 방법

#### 1. '우환의식(憂患意識)' 과 도덕적 자각

「주역」은 원전에 해당하는 「역경(易經)」과 그것에 주석을 붙인 「역전(易傳)」으로 구분된다.<sup>10)</sup> 행정인의 도덕적 덕목을 논의함에 있어서 「주역」

10) 「주역」은 괘(卦)에 효(爻)의 상(象)과 사(辭)를 서술한 것이고, 「역전(易傳)」은 그 상(象)과 사(辭)를 해석한 것이다. 결국 「역전(易傳)」은 「역경(易經)」에서 제시된 8괘(八卦)로 표징(表徵)되는 우주의 모든 형상에 상응하는 인식 구조, 즉 음(陰)과 양(陽)의 '변역(變易)'에 따른 모든 존재의 방식



에 관심을 두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전』이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부닥치는 절실한 문제들에 대하여 현실 인식의 방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역전』은 『역경』의 괘효사(卦爻辭)에 의거하여 괘효상(卦爻象)을 해석하고 괘효의 변역(變易) 원리에 근거하여 인간사의 길흉(吉凶)을 추측한다. 그 근간에는 '우환의식(憂患意識)'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심층에는 인간의 도덕관념과 그 실천을 위한 좀더 깊은 의미가 제시되고 있다.

괘(卦)의 상(象)은 강(剛)과 유(柔)의 효(爻)가 서로 작용하는 중에 변화(變化)를 낳고, 길(吉)·흉(凶)·회(悔)·린(吝)의 판단 언어<sup>11)</sup>는 그 효상(爻象)의 변동에 따른 인간사(人間事)를 보여준다. 그러나 '길·흉'과 '회·린'사이의 상호 전환은 '강'과 '유'의 효가 변동하기 때문에 항상 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우환의식'은 '천인합일'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우주의 변화에 따른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하고 이것이 역경을 해석하는데 기본 원칙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역전』에 나타난 인간사의 길흉에 대한 해석들을 통해 인간들은 자기 성찰 혹은 자각 의식을 각성시킬 수 있고, 이로써 도덕 생활의 경지에 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도덕적 내용과 의의는 「문언전(文言傳)」과 「대상전(大象傳)」에 잘 나타나 있다.

“용의 덕이 올바르고 중에 이르는 것이니, 평상시에 말을 미덥게 하고 평상시에 행실을 삼가며 간사함을 막고 그 정성을 보존하며 세상을 잘 다스려도 자랑하지 않고 덕을 넓게 펼쳐 교화시킨다.”<sup>12)</sup>

“군자는 배워서 모으고 물어서 판단하며 관대하고 너그러움에 머물고 어짊으로써 행하니, 『역경』에서 말하기를 ‘용이 밭에 나타나니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하는데 군자의 덕이다.”<sup>13)</sup>

“군자는 악함은 막고 선함은 드높여서 하늘을 따르고 명을 좋게 한다.”<sup>14)</sup>

을 설명하고 그림으로써 세계의 원천과 그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였다.

- 11)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길(吉)함'은 적합한 위치에 있어 사리에 맞는 것이고, '흉(凶)함'은 적합한 위치를 잃어서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후회(悔)함'은 적합한 위치를 놓쳐서 낙담하고 후회하여 극복하려는 것이고, '인색(吝)함'은 적합한 위치에 있어 사리에 맞아 길하기는 하나 편안하게만 있어 흉을 향해 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 12) <乾卦>, 「文言傳」 “龍德而正中者也 庸言之信 庸行之謹 閑邪存其誠 善世而不伐 德博而化”.
- 13) <乾卦>, 「文言傳」 “君子學以聚之 問以辨之 寬以居之 仁以行之 易曰 ‘見龍在田 利見大人 君德也.’”

“군자는 이로써 언어를 삼가고 음식을 절제한다.” 15)

이상은 군자의 덕을 강조한 것들인데, 모두 ‘변역’ 방식에 근거한 ‘우환 의식’의 인식을 토대로 하여 구성된 내용들이다.

## 2. 음양합일(陰陽合一)의 덕성(德性)

「역전」은 「역경」의 여러 괘들 간의 내재적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하늘과 인간의 도(天人之道)’는 음과 양이 상호 변천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늘의 도를 미루어서 인간의 도를 밝힌다’는 현실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건과 곤은 그 역의 문인 것이다. 건은 양의 물건이고 곤은 음의 물건이니 음과 양이 덕을 합하여 강과 유에 체가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하늘과 땅의 일을 체득하며 신령스럽고 밝은 덕을 통하는 것이다.” 16)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일러 도라고 하고 그것을 잇는 것을 선이라 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성이라 한다.” 17)

“하늘의 도를 세우니 음과 양이라고 말하고 땅의 도를 세우니 강과 유라고 말하고 인간의 도를 세우니 어짊과 의로움이라고 말한다. 삼재를 겸하고 둘로 하니 그러므로 역은 여섯 획이 괘를 이루는 것이니 음을 나누고 양을 나누어 유와 강을 차례로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은 여섯 위치가 규범을 이루는 것이다.” 18)

‘음·양의 덕이 합치됨(陰陽合德)’은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결합하여 일체가 되는 것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리고 모든 변화를 한 쌍의 범주들, 즉 음양(陰陽)·강유(剛柔)·동정(動靜)·건순(健順)·기우(奇偶)·대소(大小)·존비(尊卑)·진퇴(進退)·왕래(往來) 등등 상호 대응되고 전환되는 것들을 합일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역전」은 인간의 도덕 행

14) <大有卦>, 「大象傳」 “君子以遏惡揚善 順天休命.”

15) <頤卦>, 「大象傳」 “君子以慎言語 節飲食.”

16) 「繫辭傳」下, 6章 “乾坤 其易之門邪 乾 陽物也 坤 陰物也 陰陽合德而剛柔有體 以體天地之撰 以通神明之德.”

17) 「繫辭傳」上, 5章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

18) 「說卦傳」, 2章 “立天之道 曰陰與陽. 立地之道 曰柔與剛. 立人之道 曰仁與義. 兼三才兩之 六畫而成卦. 分陰分陽 迭用柔剛 故易六位而成章.”

위와 수양 역시 '음양합덕'을 준칙으로 삼아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다는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언전(文言傳)」은 곤괘의 육이(六二) 효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곧바름'은 내적으로서의 함양을, 그리고 '반듯함'은 외적으로서의 표출을 가리키는 균형 또는 조화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하늘의 도(天道)를 표현한 '원형이정(元亨利貞)'은 인간의 도(人道)인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덕행으로 전환시키고 있는데, 결국 군자의 덕은 어느 한 측면만으로 쌓아질 수 없음을 강조하는 말들이라 하겠다.

“곧바름은 그 올바름이고 반듯함은 그 의로움이다. 군자는 경건함으로써 내면을 곧바르게 하고 의로움으로써 외면을 반듯하게 하니 경건함과 의로움을 확립하여 그 덕이 홀로 있지 않게 된다.”<sup>19)</sup>

“원은 착한 것의 으뜸이요, 형은 아름다움의 모임이요, 이는 의로움의 조화됨이요, 정은 일을 주장함이니, 군자는 인을 체득하여 사람을 기르고, 아름답게 모여 예에 합하도록 하며, 사물을 이롭게 하되 의리에 조화되도록 하고, 바르고 굳세게 일을 주장하니, 군자가 이 네 가지 덕을 행함으로 말하기를, '건은 원형이정'이라 한다.”<sup>20)</sup>

이처럼 하늘의 도(道)인 '원형이정'은 인간의 도(道)인 '인의예지'의 세계관이 되어 인간은 땅의 세계와 교감(交感)하고, 하늘의 세계와 교통(交通)하는 주체적, 능동적 존재로 인식된다. 송인창(2004: 108-109)의 주장처럼 이러한 감통(感通)의 주체는 내재적 덕성(德性)이고, 그 대상은 천명(天命)이므로 천명을 깨달아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곧 덕(德)을 구현하는 것이며, 그 궁극적 목표는 인간의 완성과 인간다운 삶의 실현에 있게 되는 것이다.

### 3. 시·위(時·位)와 중정(中正)의 덕성

인간은 주역의 64괘, 384효로 나타나는 구체적 상황(時·位) 가운데 어느 하나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그 만나는 '시(時)'와 처하는 '위(位)'가 다르므로 거기에는 무궁한 변화의 이치가 있게 된다. 박신환(1990: 240-242)은

19) <坤卦> 「文言傳」 “直 其正也 方 其義也 君子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

20) <乾卦> 「文言傳」 “元者 善之長也 亨者 嘉之會也, 利者 義之和也, 貞者 事之干也. 君子 體仁足以長人 嘉會足以合禮 利物足以和義 貞固足以干事 君子 行此四德者 故曰 ‘乾 元亨利貞’.”

시위(時位)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어떤 일은 구체적 상황인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발생하므로 일의 성취는 때가 주어져야 하고,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위치가 주어져야 한다. 여기서 역(易)의 도(道)를 체득한 사람은 때에 따라 변하여 그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진리를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괘의 육효는 6개의 위(位)로서 시(時)의 변화에 따라 실제의 위(位)는 바뀌게 되고, 위는 시의 개념에 종속하게 된다. 고회민(2004: 320)도 ‘위(位)’를 떠난 ‘시(時)’는 생각할 수 있지만, ‘시(時)’를 떠난 위(位)는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시간(時間)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위치(位置)보다 더 크다고 본다. 그래서 괘의 의미는 시의 뜻에 대부분 의존하고, 효의 뜻은 위에 대부분 근거한다는 분석이다. 곧 역은 시간적 관점에서 해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음양의 관계와 변화를 설명하는 시위(時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적당한 시간·공간상의 좌표라 할 수 있는 중정(中正)이다. 『역전』에서 ‘중(中)’은 적합함을 가리키고, ‘정(正)’이라는 말은 바로잡음을 가리킨다.<sup>21)</sup>

“문장이 밝음으로서 강건하고 중정하여 감응하니 군자가 올바르다. 오직 군자만이 천하의 뜻과 통할 수 있는 것이다.”<sup>22)</sup>

“시가 멈추면 멈추고 시가 행하면 행하고 동과 정이 그 시를 놓치지 않으니 그 도가 밝게 빛난다.”<sup>23)</sup>

‘중정(中正)해서 감응(感應)한다’ 함은 적합하고도 마땅함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고, ‘군자가 바르다’ 함은 ‘중정’의 덕에 도달한 경지를 가리키는 것이며, 군자는 ‘중정’의 덕에 도달한 후에야 비로소 ‘천하의 뜻’에 상통할 수 있다(김연재, 2004: 351-354). 즉 군자가 도덕수양을 하는데 지켜야 할 원칙으로 ‘중정(中正)’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험난함이 있으면 멈추고 형통함이 있으면 행하는 ‘시중(時中)’도 시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고도 타당한 처신의 중요성을 뜻하고 있다.

21) 한 괘에서 각각 2효와 5효에 위치하면 그것을 ‘중(中)’의 위치에 있다고 하며, 또한 양효(陽爻)가 양의 위치에 있고 음효(陰爻)가 음의 위치에 있는 방식을 ‘정(正)’이라고 부른다. ‘중’과 ‘정’의 위치는 대부분 길함이 되고 더욱이 ‘중’의 위치도 얻고 ‘정’의 위치도 얻으면 더욱 더 크게 길하고 크게 이로운 것이 되기 때문에 합하여 ‘중정(中正)’이라고 한다.

22) <同人卦> 「象傳」 “文明以健 中正而應 君子正也 唯君子爲能通天下之志.”

23) <艮卦> 「象傳」 “時止則止 時行則行 動靜不失其時 其道光明” .

재정리하면, 『역전』에서 '중정(中正)'은 적재적소에 들어맞는 올바른 덕이고, '시중(時中)'은 때에 알맞은 덕을 뜻하는 것으로 인간은 공정하고도 올바른 상황 판단의 덕을 지녀야 할 것을 강조하는 덕목들이라 하겠다.

## IV. 진덕수업(進德修業)의 방법

### 1. 덕(德)의 의미

'덕(德)'은 일반적으로 '도덕적·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또는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등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주역에서는 이러한 덕의 성립구조와 과정, 그리고 구체적 내용을 흐트러짐 없는 논리로 전개하여 제시하고 있다.

앞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지위는 시간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만일 지위가 주어지게 되면 마땅히 도(道)를 행해야 함으로 항상 덕의 증진(進德)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설사 때가 이르지 않고 지위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부단히 덕을 쌓음으로써 나날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역(易)을 지은 동기나 역(易)이 존재하는 근본적 이유는 덕을 높이기(崇德) 위함이며, '덕(德)'의 가장 큰 효용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생명의 창달과 깊은 관계가 있음이 다음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sup>24)</sup>

- ① “역이란 성인이 이를 이용하여 덕을 높이고 사업을 넓히는 것이다.” / ② “도와 덕에 조화를 이루며 순응하고 마땅한 이치로 처리한다.” / ③ “천지의 큰 덕은 만물로 하여금 부단히 낳아 그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 / ④ “낳고 또 낳아 그치지 않음을 역이라 한다.” / ⑤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일러 성대한 덕이라 한다.”

### 2. 덕의 증진(進德) 방법

덕을 향상시키는(進德) 방법으로 건괘(乾卦)의 괘사에 “군자는 종일토록 부지런히 힘써서 쉬지 말 것과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 두려운 마음으로 성찰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으로 마음속 생각의 사특함이 없도록 힘쓰고, 밖으로 의(義)의 실천에 주력하라”<sup>25)</sup>는 권고가 있다. 그리고 “성덕자(盛德者)는 수

24) ① 「繫辭傳」上, 7章 “夫易 聖人之所以崇德而廣業也”. / ② 「說卦傳」, 1章 “和順於道德而理於義”. / ③ 「繫辭傳」下, 1章 “天地之大德曰生”. / ④ 「繫辭傳」上, 5章 “生生之謂易”. / ⑤ 「繫辭傳」上, 5章 “日新之謂盛德”.

고하고도 자랑하지 않으며, 공을 세우고도 내세우지 않지만, 좋은 결과 있다<sup>26)</sup>” 고 본다. 덕행을 쌓은 자는 묵묵하되 만사에 두루 형통하고,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믿어 주며, 항시 평이한 데 거하면서 험한 것을 극복하고, 항시 간편한 것을 가지고 힘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덕을 쌓아가는 자는 온갖 장애, 위험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우환에 처하는 도리를 밝힌 것이 곧 ‘9덕괘(九德卦)’ 이다.

### 3. 3진 9덕(三陳九德)

『역전』은 ‘우환의식’에 근거하여 9가지의 수양 덕목을 3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역경』의 흥함이 중고시대일 것이다. 『역경』을 지은 사람은 우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여 지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履)괘는 덕의 바탕을 말하고, 겸(謙)괘는 덕의 중추(柄)를 말하고, 복(復)괘는 덕의 근본을 말하고, 항(恒)괘는 덕의 견고함을 말하고, 손(損)괘는 덕의 닦음을 말하고, 익(益)괘는 덕의 넉넉함을 말하고, 곤(困)괘는 덕의 분별함을 말하고, 정(井)괘는 덕의 터전을 말하고, 손(巽)괘는 덕의 제어함을 말한다.

이(履)괘는 화합하여 이르는 것을 말하고, 겸(謙)괘는 존귀하고 빛나는 것을 말하고, 복(復)괘는 작지만 널리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항(恒)괘는 섞이면서도 싫어하지 아니함을 말하고, 손(損)괘는 어려운 일을 먼저하고 쉬운 일을 뒤에 할 것을 말하고, 익(益)괘는 덕이 자라서 여유가 있으나 베풀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곤(困)괘는 궁하면 통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정(井)괘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덕이 옮겨가는 것을 말하고, 손(巽)괘는 남의 공은 칭찬하지만 자기의 공은 숨기는 것을 말한다.

이(履)괘로 행동을 조화롭게 하고, 겸(謙)괘로 예를 제어하고, 복(復)괘로 반성하여 스스로 알고, 항(恒)괘로 덕을 한결같이 하고, 손(損)괘로 해로운 것을 멀리하고, 익(益)괘로 이로움을 일으키고, 곤(困)괘로 원한을 적게 하고, 정(井)괘로 의로움을 분변하고, 손(巽)괘로 권도를 행하는 것이다.”<sup>27)</sup>

25) <乾>, 九三 “君子終日乾乾，夕惕若”. 및 “忠信所以進德也”.

26) 『繫辭傳』上, 8章 “勞謙君子有終 勞而不伐 有功而不德 厚之至也”.

27) 『繫辭傳』下, 7章 “易之興也 其于中古乎 作易者 企有憂患乎 是故 履 德之基也 謙 德之柄也 復 德之本也 恒 德之固也 損 德之修也 益 德之裕也 困 德之辨也 井 德之地也 巽 德之制也. 履 和而至 謙 尊而光 復 小而辨于物 恒 雜而不厭 損 先難而后易 益 長裕而不設 困 窮而通 井 居其所而遷 巽 稱而隱. 履 以和行 謙 以制禮 復 以自知 恒 以一德 損 以遠害 益 以興利 困 以寡怨 井 以辨義 巽 以

이것을 다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삼진구덕의 성격과 효용

괘명	덕의 성격	덕의 효용
이(履)	德之基 카당	和而至 以和行 행동을 조화함
겸(謙)	德之柄 중추	尊而光 以制禮 예를 억제함
복(復)	德之本 근본	小而辨於物 以自知 자기를 반성함
항(恒)	德之固 견고	雜而不厭 以一德 력을 항상함
손(損)	德之修 수기	先難而後易 以遠害 해를 멀리함
익(益)	德之裕 풍요	長裕而不設 以興利 기를 일으킴
곤(困)	德之辨 분변	窮而通 以寡怨 원한을 적게함
정(井)	德之地 킷진	居其所以遷 以辨義 의로움을 분변함
손(巽)	德之制 통제	稱而隱 以行權 권도를 행함

자료: 광신환(1990): 196을 수정하여 재인용

『역전』의 64괘 모두는 덕(德)으로 '우환(憂患)'을 극복하는 경지를 보여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9개의 덕이 수기의 근본<sup>28)</sup>이 되고 있다.

## V. 9덕(九德)의 내용

### 1. 『주역』상경: 리(履), 겸(謙), 복(復)

#### 1) 리(履)<sup>29)</sup>


‘리(履)’는 밟아나감을 뜻하며 사람이 환난에 맞닥뜨렸을 때에라도(호랑이 꼬리를 밟을지라도) 가장 먼저 예(禮)를 갖추어 행동해야 함을 말한다.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은 부드럽고도 기쁜 태도로 강함에 응(應)하여 형통할 수

行權”.


28) 『역전』이 64괘 가운데에서 왜 하필 이 9괘에 의거하여 도덕 수양문제를 논하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역경』을 해석하는 『역전』의 초점이 윤리 도덕에 있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예증으로 괘를 열거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9괘만이 제시된 것으로 보여 진다. 즉 9괘의 이름을 빌려 인간은 자신의 덕성을 함양시켜야 한다는 교훈을 계몽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김연재, 2004: 351)

29) <履卦> 「象傳」 “履 柔履剛也 說而應乎乾 是以履虎尾 不啞人 亨 剛中正 履帝位而不疚 光明也”.

있다. ‘리’는 겸손을 따르고 교만을 멀리하며, 내면적 성실에 힘쓰고 겉으로 꾸미는 형식을 미워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상하’를 분명히 하고, ‘예’에 따라서 각자 자기 직분을 잘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괘의 덕목은 《고난에 처해도 예의로 겸손히 행동하며 내실에 더욱 힘써야 한다.》


2)  겸(謙)30

‘겸(謙)’은 겸손함을 의미한다. 겸손해야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예절의 지나친 엄숙함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덕을 갖추어야 겸손해질 수 있으며, 참다운 겸손은 꾸며서가 아니라 덕을 많이 쌓아서 저절로 겸손해지는 것이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마땅히 많은 자는 궁핍한 자와 나누어야 하며, 형평에 맞게 배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겸(謙)괘의 덕목은 《덕을 갖추어 겸손해져서 형평에 알맞게 나누어 갖는다.》

3)  복(復)31

‘복(復)’은 되돌아옴을 뜻한다. 복은 강건한 양기(陽氣)가 유순한 음기(陰氣)를 밀고 올라가는 형상, 즉 장애를 극복함으로써 환난이나 허물이 없게 되는 형상이다. 형통함은 수양을 게을리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인간이 환난에 처하여도 마음과 몸의 단련을 도덕 수양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복(復)괘의 덕목은 《음양의 변역 방식을 체득하고 우환의식으로 몸과 마음을 수양한다.》

2. 『주역』 하경: 항(恒), 손(損), 익(益), 곤(困), 정(井), 손(巽)

1)  항(恒)32

‘항(恒)’은 영구함을 의미한다. 바르게 해야 이롭고, 원칙을 지켜서 일을

30) <謙卦> 「象傳」 “謙 亨 …… 天道虧盈而益謙 地道變盈而流謙 鬼神害盈而福謙 人道惡盈而好謙 謙尊而光 卑而不可逾 君子之終也”. / <謙卦> 「象傳」 “地中有山謙, 君子以裒多益寡, 稱物平施”.

31) <復卦> 「象傳」 “復 亨 剛反 動而以順行 是以出入無疾 朋來無咎 反復其道 七日來復 天行也 利有攸往 剛長也 復其見天地之心乎”. / <復卦> 「小象傳」 “不遠之復, 以修身也”.


32) <恒卦> 「象傳」 “恒 久也 剛上而柔下 雷風相與 巽而動 剛柔皆應 恒恒 亨 無咎 利貞 久于其道也 天地之道 恒久而不已也. 利有攸往 終則有始也. 日月得天而能久照 四時變化而能久成 聖人久于其道而天下久成 觀其所恒 而天地萬物 之情可見矣”.




추진해 나가야 이롭다는 뜻이다. 관건은 ‘덕의 견고함’이며, 모든 것은 항상 일정하게 순환하며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도덕 수양을 고수해야 하는 이유가 함축되어 있다.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우환의 경험 속에서 꾸준히 도덕적 함양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일정하고 지속됨을 고수하는 방식은 ‘우환의식’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항(恒)괘의 덕목은 《올바른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간다.》

2)  손(損)33)

‘손(損)’은 덜어낸다는 뜻으로 욕심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덜고 더하는, 차고 비우고 하는 감응(感應)은 모두 ‘시(時)’에 합치되어야 한다. 자기 수양의 근본은 바로 자신은 덜어내고 남에게 이득을 주는 도덕함양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손괘는 덕의 체현을 위한 주체 인식의 방법을 제공한다. 따라서 손괘의 덕목은 《자신의 욕심을 줄여서 남이 잘 되도록 도와준다.》

3)  익(益)34)

‘익(益)’은 더해줌을 뜻하며, 자신의 장점을 고양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 함의는 스스로 구제하는 쪽으로 전환하여 이득을 얻는 역량이며, 덜어서 보태주다 보면 반드시 이로움이 있게 되므로 손괘 다음에 익괘가 온다. 가장 큰 이로움은 혼란한 시대에 어지러움을 극복하는 것인데, 혼란을 극복하려면 폭풍(巽)과 우뢰(震)가 치듯이 과감하게 해야 하며, 시의(時宜) 적절한 원칙에 입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함과 선함에 접근하려고 애쓰고, 혹시 과실이 있다면 신속히 올바르게 고치는 개과천선(改過遷善)의 태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익(益)괘의 덕목은 《곤란한 상황에 처할수록 더욱더 스스로를 구제하고, 과실(過失)이 있으면 시의에 따라서 올바르게 과감히 고치는 것이다.》

4)  곤(困)35)

‘곤(困)’은 곤경에 처함을 의미한다. 곤경에 맞닥뜨렸을 때 확고한 신념과

33) <損卦>, 「象傳」 “損 損下益上 其道上行 損而有孚 元吉 無咎 可貞 利有攸往 曷之用 二簋可用亨 二簋應有時 損益盈虛 與時皆行” .

34) <益卦> 「象傳」 “益 損上益下 民說無疆 自上下下 其道大光 利有攸往 中正有慶 利涉大川 木道乃行 益動而巽 日進無疆 天施地生 其益無方 凡益之道 與時偕行” . / <益卦> 「大象傳」 “風雷 益 君子以見善則遷 有過則改” .

35) <困卦> 「象傳」 “困 剛揜也 險以說 困而不失其所亨 其唯君子乎 貞大人吉 以剛中也 有言不信 尚口乃窮也” . / <困卦> 「大象傳」 “澤無水 君子以致命遂志” .

입장을 갖고서 고난을 형통함으로 올바르게 바꾸어야 한다. 오르기를 계속하게 되면 반드시 곤궁하게 되므로 승패 다음에 곤괘가 왔다. 2효와 5효는 둘 다 강건한 양효이면서도 가운데(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하면 길한 것이다. 이는 군자가 곤경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욱더 정도(正道)를 잘 고수해야 함을 함축하고 있다. 곤괘의 궁극적인 의의는 인간이 곤궁에 처한 것이 오히려 자신의 의지를 다지고 스스로를 성찰시켜 도덕 수양의 경지를 고양시키게끔 한다는 데에 유익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곤(困)괘의 덕목은 《곤경에 처했을 때는 확고한 신념과 입장으로 정도(正道)를 지켜서 고난을 형통함으로 바꾸는 것이다.》

### 5) ䷯ 정(井)<sup>36)</sup>

‘정(井)’은 우물을 의미하는데 두레박이 땅가져버린 형상이므로 위험과 어려움에 처함을 말하고 있다. 곤궁하여 땅 속 깊이 내려갔으므로 우물의 도(변함 없이 만물을 생성하는 덕)를 간직하고 부단히 고쳐나가면 곤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우물의 물이 만물을 배양하듯이 군자가 도덕수양 하는 근본 취지는 백성과 그들의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백성들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권장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정(井)괘의 덕목은 《곤궁함에 처했을지라도 시종일관 선함의 도덕성으로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이다.》

### 6) ䷶ 손(巽)<sup>37)</sup>

‘손(巽)’은 유순함의 뜻으로 손이 겹쳐있다. 이것은 군자가 유순한 마음으로 거듭하여 명령을 내리는 것을 상징한다. 군자는 자신의 행적을 다 드러낼 수 없어서 권력을 통해 변화를 이루어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위와 아래 거듭된 손의 형상에는 순종의 의미가 있다. 바람(巽)은 겸손하여 어느 곳이나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으니, 이를 본받아 임금이 겸손한 마음으로 명령을 내려서 만백성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시행되도록 하면 좋다는 것이다. 음의 유약함이 양의 강건함을 따르는 것은 덕을 수행하는 기본적 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손(巽)괘의 덕목은 《유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권력을 통해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36) <井卦>「象傳」 “巽乎水而上水 井 井養而不窮也 改邑不改井 乃以剛中也 汔至亦未橋井 未有功也 羸其瓶 是以凶也”. / <井卦>「大象傳」 “木上有水 井 君子以勞民勤相”.

37) <巽卦>「象傳」 “重巽以申命 剛巽乎中正而志行 柔皆順乎剛 是以小亨 利有攸往 利見大人”.

## VI. 결 론

실제의 행정현상은 매우 역동적이며, 관련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 있는 관계가 지속적으로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매우 복잡한 세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과정, 구조, 기능, 절차, 규칙 및 습관적 행정행위들은 대부분 성찰적 비판 없이 수용되고 있다. 또한 실제에서 행정인은 매우 나약하고 무기력한 수동적 존재로서, 행정 목적을 위해 통제·조작·지배되는 존재로 인식되어 버렸다. 그러나 행정인은 성찰적 특성을 지닌 능동인이며, 동시에 자율적·도덕적 이성을 지닌 존재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러나 『역전(易傳)』에서는 ‘음양론(陰陽論)’과 ‘시위론(時位論)’에 근거하여 『역경(易經)』의 변역과 조화의 이치를 해석하며, 동시에 ‘우환의식(憂患意識)’을 통해서 괘(卦)를 해석하고 도덕적 자각을 꾀한다. 따라서 『주역(周易)』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현재의 복잡한 행정현상에서 행정인들이 왜 성찰적이어야만 하는지, 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하며, 성찰적 행정을 위한 행정인의 도덕적 덕목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리고 변역(變易)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왜 어떤 하나의 행정이론이나 방법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며, 끊임없이 비판하고 성찰해야 하는지를 알게 한다. ‘중정(中正)’ 함은 자신의 지위(地位)에 적합한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마땅한 지위를 점하고, 시간(時間)에 따라 적절한 처신의 덕목(德目)들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감통(感通)의 주체인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만 ‘덕(德)’의 구현이 가능함을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덕을 향상시키는 구체적 방법으로 9덕(九德)을 고찰하였다. 9덕괘의 덕목들은 현대의 행정인에게도 많은 은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상황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리괘는 어떤 위기가 닥쳐도 예(禮)로서 자기직분을 성실히 실천하여 응할 것, 겸괘는 자원을 형평에 맞게 배분할 것, 복괘는 환난일수록 몸과 마음을 수양할 것, 항괘는 올바른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할 것, 손괘는 타인의 성공을 정성으로 도울 것, 익괘는 고르지 못한 기회와 배분을 염려하여 과감히 고칠 것, 곤괘는正道(正道)로서 고난을 형통으로 바꿀 것, 정괘는 어려울수록 백성들의 상부상조를 권장할 것, 손괘는 유순한 마음으로 권력을 사용하여 변화를 이룰 것 등의 덕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시된 덕목들은 복잡계 행정에 있어서 행정인들에게 시스템 사고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덕목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따라서 모든 행정인들은 ‘행정’의 어떤 고유한 영역에만 집착하기 보다는 행정을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과정적·맥락적 사고로서 접근하여야 한다. 이 때 주역은 행정을 이러한 새로운 관점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철학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현재 노골화

되고 있는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해준다.

음양론(陰陽論)의 핵심은 변화를 통한 생명의 생성이고, 시위론(時位論)의 핵심은 중정(中正)이지만, 그 궁극적 목적은 천·지·인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덕(德)을 세우고 인(仁=사랑)을 실천하느냐로 귀결된다고 하겠다. 시위론과 음양론은 일체의 관계에 있으므로 최적의 시위(時位) 조건에서 음양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마찬가지로 천인합덕(天人合德)의 수기(修己)를 통해서 인간은 본성을 지킬 수 있고 인(仁)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남상호, 2001: 31).

본 연구가 연구목적에 필요한 표현들만 부분적으로 취사선택하였다는 비판은 근본적으로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자칫 『주역』을 절대시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특히 동양사상 우월주의에 따른 논의의 비 객관성(非客觀性) 문제, 서지학(書誌學)적 문제, 자구(字句)해석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은 의도적으로 논의 하지 않았다. 다만, 현대 행정인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덕목들을 재구성하여 제시하고, 연구의 함의를 통하여 변화하는 행정에 대응하는 적실성 있는 도덕 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 참 고 문 헌

- 고재욱 외, (2003). 「현대사회와 동양사상」, 춘천: 강원대학교출판부.
- 고희민, (1995). 「周易哲學의 理解」. 鄭炳碩(譯), 서울: 文藝出版社.
- 곽신환, (1990). 「주역의 이해」, 서울: 서광사.
- 굴드너, A.W, (1981). 「현대사회학의 위기」. 김쾌상(역), 서울: 한길사.
- 기든스, A, (1991). 「사회이론의 주요쟁점」 윤병철(역), 서울: 문예출판사.
- 김경동, (1989). 역경의 사회학적 도식. 「사회학의 이론과 방법론」, 서울: 박영사.
- 김광웅, (1983). 「행정과학서설」, 서울: 박영사.
- 김동환, (2004). 「시스템 사고」, 서울: 선학사.
- 김연재, (2004). {주역}의 도덕관. 「주역의 근본원리」. 한국주역학회(편), 서울: 철학과 현실사: 314-356.
- 김영중, (1986). 현대행정학의 행정철학적 반성과 과제. 「한국행정학보」, 20(1).
- 김인환, (1998). 「주역(周易)」, 서울: 나남출판.
- 김재범, (2001). 「주역사회학」, 서울: 예문서원.
- 김재운·최진태, (1997). 「현대인의 윤리학」, 서울: 대영문화사.

- 남상호, (2001). 「중국철학방법사」, 춘천: 강원대학교 출판부.
- 왕필, 「주역 왕필주」. (2001). 임채우(역), 강릉: 길.
- 우홍준, (2000). 조선시대 향약정착의 한 원인으로서는 유교정치사상. 「한국행정학보」, 34(4):103-114.
- 이승환, (1998).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전중섭, (2001). 「행정철학」. 윤재풍 · 정희남(공역), 서울: 대영출판사.
- 정해창 외, (1998). 「형이상에 대한 동서양의 철학적 접근」,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창수, (1980). 주역의 사회학적 해석.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회. 14.
- 천병돈, (2004). 역전(易傳)의 수양론. 「주역의 근본원리」, 한국주역학회(편), 서울: 철학과 현실사:291-313.
- 최석만, (1996). 동양사상에 대한 현대사회학적 해석. 「동아시아 사회학의 미래」, 한국사회학회.
- 최창집, (1999). 반계 유형원의 행정철학. 「한국행정학보」, 33(1):331-348.
- 카프라, (1999). 「생명의 그물」, 김용정 · 김동광 역, 서울: 범양사출판부.
- 한겨레신문, (2005). 공직자 능력보다 도덕성. 5월17일:1-3.
- 한국주역문화학회 편, (2003). 「주역철학과 문화」, 서울: 수덕문화사.
- 한국주역학회 편, (2004). 「주역의 근본 원리」, 서울: 철학과 현실사.
- 후설, E. (1989). 「서양의 위기와 현상학」. 이종훈(역), 서울: 경문사.
- 江公正. (1979). 「易經哲學新論」. 臺北: 新動力雜誌社.
- 高懷民. (1978). 「大易哲學論」. 臺北: 成文出版社.
- 程伊川. (1982). 「易程傳」. 臺北: 世界書局.
- Argyris, C. (1964). Integrating the Individual and the Organization. NY: John Wiley.
- Burns, James M. (1978). Leadership. NY: Addison-Wesley.
- Chein, Isider. (1972). The Study of Man. NY: Basic Books.
- Chomsky, Noam. (1972). Language and Mind. Enlarged edition. NY: Harcourt Brace Jovanovich.
- Downs, Anthony. (1967). Inside Bureaucracy. Boston: Little, Brown.
- Freire, Paulo. (1970). Culture Action for Freedom. Monograph Series No.1. Harvard Educational Review and Center for the Study of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 Habermas, J. (1970). Knowledge and Human Science: A Phenomenologically Based Approach. NY: Harper and Row.

- Harmon, Michael. (1969). Administrative Policy Formulation and the Public Interes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9(Sep/Oct): 483-491.
- Jun, J.S.(1986). *Philosophy of Administration*. Seoul: Daeyoung Moonhwa International.
- Lynn. R.J.(1994). *The Classic of Changes*.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Parsons, Talcott. (1951). *The Social System*. Glencoe, IL: Free Press.
- Presthus, Robert. (1978). *The Organizational Society*. Revised edition. NY: St. Martin.
- Rawls. J.(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Harvard University Press.
- Rogers, Carl R.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 Schutz, Alfred. (1967). *The Phenomenology of the Social World*. Translated by George Walsh & Frederick Lehnert. Chicago: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Skinner, B.F. (1971). *Beyond Freedom and Dignity*. NY: Bantam Vintage Books.
- White, Orion Jr. (1973).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Praxis. *The Journal of Comparative Administration*. 5(1): 85-90.
- Zaner, Richard M. (1961). Theory of Intersubjectivity: Alfred Schutz. *Social Research*. 28(Spring): 71-94.

## Abstract

### Moralistic Virtue-Item of the Proactive Administrator: Focused on a View on the World of 『The Book of Change』 and Interpretation of the 'Nine-Virtue-Trigram'

Soon-Hee Jang · Kwang-Mo Le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aise some significant questions concerning public administration issues and try to discuss them from the conceptual viewpoint. One of the major themes in this study is that public administration must be approached to bring the different ways of studying administration to more adequat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complex administrative phenomena. Proactive administrator may achieve more reasoned judgment about proactive change. Therefore, we attempt to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active administrator.' It is conclusion that proactive change in bureaucracy is possible only with such proactive administrator.

Based on a view on the world of 'virtue character(德性)' in 'union between nature and man(天人合一)' of 『the Book of Changes(周易)』, this study research basic principles of 'the Book of Change(周易)', such as 'worry consciousness(憂患意識)', 'yum-yang union(陰陽合一)', 'time-position(時位)', and 'equilibrium-righteousness(中正)'. In particular, we apply the 'promotion of virtue-pursuit of knowledge(進德修業)' to proactive administrator, focusing on analyzing the 'nine-virtue-trigram(九德卦).'

**[Key words: Proactive Administrator, Worry Consciousness, Yum-Yang Union, Time-Position, Nine-Virtue-Trigram]**